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진단 연구

- I. 서론
- II.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진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
- III. 춘천·부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서정수

초 록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를 가지고 1990년대 후반에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 시기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그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도입하여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역 단위의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에 의해 지역 단위의 소규모 클러스터로 육성 되어졌다. 이로 인해, 지역 문화산업은 태생적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도 지역 산업으로의 정착할 때까지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진흥 기관이 등장하였고, 지역 진흥 기관의 진흥 정책 성과에 의해 클러스터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대단위 클러스터에서의 영향 분석은 가능하지만, 국내 현실과 같은 소단위 클러스터에서는 영향과 성과 분석이 매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클러스터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클러스터의 성격이나 효과가 아닌 클러스터의 존재의 유무 판별이 중심적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국내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성과를 평가하기 힘든 문제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애로점은 첫째, 현재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자생적 클러스터가 아닌 정책적 진흥으로 생성된 인위적 클러스터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로는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 각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들은 거의 동일한 국내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클러스터간의 지리적 거리가 크게 이격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클러스터의 성과 및 효과를 판단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셋째, 이러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성과의 중심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흥기관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방식의 진단 분석으로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경쟁론을 기반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의 존재를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성과 보다는 지역 산업 진흥의 주체인 진흥기관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춘천과 부천의 사례를 대입하여 실증해 봄으로써 진흥기관의 진흥 성과 분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의 진흥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클러스터의 활성 정도와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문화산업,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다이아몬드 모델, 진흥 성과, 진흥 기관

I. 서론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인력 등의 다양한 주체가 모여 상호 연계를 통해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경쟁과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경쟁력 확보의 유기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지방 문화산업 육성은 대부분 산업 진흥 기관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진흥 업무를 대행하는 진흥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지방 문화산업은 진흥기관의 진흥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진흥기관이 구축한 클러스터 주체의 연계 강도가 그 클러스터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국내 지방에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진흥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업군의 형성과 지자체의 정책이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하겠다.²⁾

-
- 1) Cooke, P.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집적화를 통해 형성되며, 클러스터 내에서는 각 구성요소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구성요소인 대학, 연구기관, 문화산업 기업, 해당분야의 지역 문화예술계 등이 다양하고 결속력이 강한 연계를 구축하고 경쟁을 기반으로 상호 학습을 이루어 내 집적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한다.(Cooke, P. *Knowledge economic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 2002.) Porter, M.은 클러스터에 대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가치사슬에 포함된 기업,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기관,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형성된 조직(지식, 인적자원 등), 그리고 소비의 네트워크(구매자, 구매시장 등)로 정의하였다(Porter, M., "Cluster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76, No.6(1998, Nov.-Dec.), pp.77-90), 서정수·권재웅,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와 회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25호(2011), pp.155-175 재인용.
 - 2) 국내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본격화는 산업자원부가 2002년에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정책화(산업자원부,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 『산업클러스터 추진협의회 자료』, 산업자원부, 2002.)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체계(RIS) 이론을 기초로 혁신 클러스터들이 중심이 되는 신국토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국정과제회의 보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을 제시해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각 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국가 주도의 클러스터 형성은 국가 정책화 되고 각 지역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 지역별 정책을 수립하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자체 안에 육성 부서를 두었다가 대부분 진흥기관으로 독립시킨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정책 역할

이러한 형태는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하기 시작한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에서 출발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국내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지식기반 산업을 중점 육성 추진을 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참여 정부’ 시기에는 이러한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정 과제 중 사회·문화 부분에 ‘지식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창조적 문화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지표로 제시하게 된다. 또한 동 시기에 지식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을 사회 핵심 자원화 하는 정책³⁾을 추진하였다.⁴⁾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기에는 IT 산업 육성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별 특성과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문화산업단지가 설치되었다. 특히 IT 기술 발전에 의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추진 정책 중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문화산업의 육성 정책이 도입되고,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단순 하청 구조였던 애니메이션 산업이 창조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정책적 육성의 선택을 받게 된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른 영상물에 비해 캐릭터나 언어의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화 지원 정책 실현을 이끌어 내게 된다.⁵⁾

그러나 당시에는 거의 모든 문화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교통과 인구의 집적화라는 배경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형성해 크게 발전해 가고 있었다.⁶⁾ 이러한 문화산업의 집적화는

과 진흥 역량은 진흥 기관에 집중화 된다. 서정수·권재웅, 앞의 논문, 2011, 재인용.

3) 참여정부 시기에 신 성장 동력으로 지식문화 산업을 선정하였고, 국정 정책과 국정 과제에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4) 국정홍보처,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국정홍보처, 2003, 발췌 정리.

5) 김대호 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발췌 정리.

6) 복득규,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발췌 정리.

당시의 지역 균형 정책을 위배하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전 지역 경쟁력을 조화롭게 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시도의 배경에는 정책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동성을 부여한 목표와 함께 집권-집중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이었다.⁷⁾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국가 단위의 사업을 지역 단위의 산업으로 특화하여 각 지역별 고유 특성을 만드는 시도였고,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혁신체계 형성 및 지역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산업 진흥기관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는 지역 문화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 1999.2.8 법률 제5927호)’에 의해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의 근거를 두어, 정부는 지원, 지자체가 추진, 민간이 진흥기관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구성하였다. 문화산업단지는 이렇게 법률적 체계와 조직을 마련하고 의욕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클러스터 생존의 가장 큰 요소인 경쟁에 의한 생존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즉, 인위적으로 만들고자 한 신규 클러스터는 스스로의 생존력을 갖추기까지 진흥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상기 법령의 요건에 따라 진흥기관과 진흥 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진흥기관의 인프라 요소는 안정되고 있었으나, 지역 클러스터 구성요소 및 산물은 대외 경쟁력 확보가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정권 교체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한, 지역 문화산업에 대한 적극적 정책 미흡과 지역 진흥 정책 결과에 대한 세부적 검토 미비에 따라 발생한, 발전적 환류의 정체에서 나타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7) 이승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발췌 정리.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지역 문화 산업 초기부터 육성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클러스터 다이아몬드 모델⁸⁾을 기반으로, 진흥기관의 역할이 들어간 다이아몬드 모델을 새롭게 구성한다.
- 실제 클러스터 성과 지표를 사용해 유의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 위에서 구성된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클러스터 연계 요소간의 관계 모델을 구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지역 진흥 정책 결과에 대한 발전적 환류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II.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진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

1. 포터의 클러스터 경쟁력 모델

마이클 포터⁹⁾는 클러스터의 구조와 함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성 요소와의 연계를 경쟁력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중요 요소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하고, 상호 연계되는 강도로 경쟁력 형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델의 형태가 다음 그림과 같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와 연계를 통해 경쟁력이 발생함을 보여준다.¹⁰⁾ 이 모델은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설

8)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에 나타난 클러스터 경쟁력 모델을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한다. 다이아몬드의 각 축에 클러스터 구성 요소들이 배치되고, 클러스터 구성 요소간의 연계를 중요시 한다.

9)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 1947-): 현재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Bishop William Lawrence University Professor로 재직 중이다. 클러스터 경쟁과 경영 분야를 비롯하여 기업 경영 전략과 국가 경쟁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저서로는 『경쟁론』, 『국가경쟁우위』, 『경쟁전략』, 『경쟁우위』 등이 있다.

10) 마이클 포터, 『경쟁론』, 세종연구원, 2003, pp.191-327, 발췌 정리.

명하며, 이 모델을 통해 클러스터의 생성, 성장, 쇠퇴의 과정이 구성요소의 활성화와 각 구성요소의 연계 강도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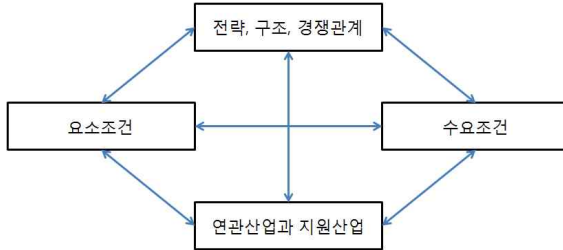


그림 1. 다이아몬드 모델¹¹⁾

이 모델에서 요소조건은 숙련된 노동 혹은 하부구조 등과 같이 기존 산업 경쟁에 필요한 생산요소 포지션을 나타내고, 수요조건은 해당 산업이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특성을 나타내며,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은 경쟁력 있는 공급자나 여타 연관산업의 존재여부를 나타내고, 전략, 구조, 경쟁관계에서는 창업, 조직, 관리 등과 국내 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지배하는 국가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¹²⁾

구성요소	특징
전략, 구조, 경쟁관계	해당 산업을 정책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경쟁을 유발시키는 국가기구
요소조건	산업 경쟁에 필요한 생산적 요소 및 생산적 요소의 공급
수요조건	해당 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연관산업과 지원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연관 산업이나 여타 산업에 대해 가지는 경쟁과 지원에 해당

표 1. 구성요소의 특징

11) 마이클 포터, 앞의 책, 서정수·권재웅, 앞의 논문, 재인용.

12) 마이클 포터, 위의 책, 마이클 포터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중요성과 더불어 상호 연계의 강화를 중요시 하였는데 이 연계를 약화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제약이라 하였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제약의 해소가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서정수·권재웅, 앞의 논문, 재인용 및 재구성.

이 모델을 기준으로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전략, 구조, 경쟁관계는 모델에서 산업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과 경쟁을 유발시키는 국가기구에 해당한다. 이 특성은 국가적 차원의 산업 전략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 초기에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시행된 문화산업 단지의 형성 정책이 해당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였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이 해당되고, 이 기구에서 추진하였던 지방 분권 정책과 지역 클러스터 조성, 지역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역 진흥원 조성, 지역 테크노파크 형성 등에 해당하는 정책, 그리고 각 지역의 경쟁을 촉발시킨 지역별 특성화 경쟁 및 특화산업 선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형성에 해당하는 정책의 부분이 해당된다.

요소 조건은 생산적 요소 또는 생산적 요소의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즉, 클러스터가 생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산력 기반의 요소를 의미하며, 이 부분에는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인적자원, 인적자원을 교육하는 인프라, 교육과정, 연구 개발 능력 등이 포함되게 된다. 클러스터에 공급 가능한 인력과 기술 연구에 의한 기술의 발전 체계, 인력 양성의 체계 등의 투입 요소가 중요하게 된다.

수요조건은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라 함은 유무형의 재화를 모두 총칭하는 것이다. 즉, 제품, 콘텐츠, 문화, 서비스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생산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품에 대한 수요층인 소비자의 존재를 중요시 하는데, 시장 성향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 따라서 클러스터 내의 기업 매출, 파생되는 부가가치 등이 포함되게 되며, 기업의 생산물 종류와 생산량도 포함되게 된다. 즉, 시장의 수요가 우선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화의 규모나 생산 능력이 중요시 된다.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은 건실한 지역 공급자 및 경쟁력 있는 연관 산업으로 대표되는데, 기업의 생산을 위한 협력 관계나, 경쟁

력을 갖춘 관련 산업군을 의미한다. 즉, 협력 관계를 통한 클러스터 구성과, 인접 산업을 통해 형성되는 경쟁력에 의해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예로 자동차 산업 단지 내의 협력 기업을 들 수 있다. 또한, 클러스터의 산업을 지원하는 체계가 포함되고, 상호 협조와 상생을 통해 발생하고 발전되는 경쟁력이 중요시 된다.

2. 진흥 성과 진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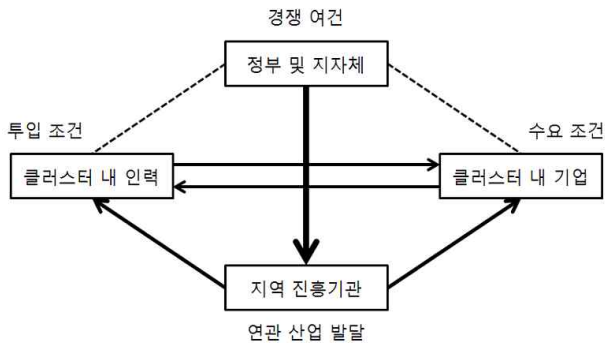


그림 2. 진흥 성과 진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¹³⁾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모델을 위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이 현재 클러스터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며, 경쟁력을 기반으로 클러스터의 생성, 발전, 쇠퇴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이다. 그러므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러스터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클러스터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산업군을 발전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포터는 이러한 클러스터 구성 요소간

13) 서정수, “행위자 중심의 영상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추진 성과 비교-춘천·부천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발췌 재정리.

의 연계가 중요함을 보여주었고,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략, 구조, 경쟁관계,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과 지원산업이 다이아몬드의 축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계를 통해 그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현상을 모델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다이아몬드의 각 축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모델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각 축이 형성되고 나면 각 축의 구성 요소간의 연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경쟁 여건은 상호 경쟁과 경쟁 여건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를 발생하게 한 정부 부분이 포함되며, 지역 산업과 지역 클러스터를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가 해당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성요소	해당 주체	기 능
경쟁여건	정부	경쟁의 발현, 정책의 수립, 지원의 선택
	지자체	경쟁의 수용, 정책의 실현, 지원과 관리

표 2. 경쟁여건 요소의 특징

경쟁여건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되는 주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입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클러스터 간의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각 지역별 특성화를 추구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며, 상호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등의 발전적 경쟁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체계에 맞추어 경쟁을 수용하고, 경쟁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수용하여, 지역 산업에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에서 경쟁여건을 대표하는 해당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구성요소	해당 주체	기 능
연관산업	지자체	진흥기관 설립, 지원 기능을 진흥기관에 부여
	진흥기관	클러스터 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연관 산업 육성

표 3. 연관 산업 발달 요소의 특징

연관 산업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되는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 진흥기관으로 대입될 수 있겠다. 지자체는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 산업 클러스터 진흥기관을 설립하며, 정부로부터 제시되는 정책이나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산업 진흥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연관 산업의 구성요소에 지자체도 영향력은 있으나, 전반적인 것은 진흥기관으로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 진흥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은 지원과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모체가 되고, 클러스터의 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과, 연관 산업 및 산업 지원 환경 조성에 집중하게 된다. 이 역할의 범위는 지역 산업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에서 연관 산업을 대표하는 주체는 지역 진흥기관이 되는 것이다.

구성요소	해당 주체	기 능
투입조건	교육·연구기관	인적 자원의 양성 및 공급, 신기술 개발 적용
	클러스터 인력	클러스터 내에서 고용되어 활동하는 인력

표 4. 투입조건 요소의 특징

투입조건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되는 주체는 교육·연구기관과 클러스터 내 인력으로 대입될 수 있겠다. 교육·연구기관은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치도 대부분 클러스터 인근에 존재한다. 주요 기능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 및 공급과 함께,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연구 등을 제공하여, 클러스터 산업이 발전되고 고도화 되게 하는 인적자원 및 기술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클러스터 내 인력의 경우는, 지역 산업 클러스터에 속해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인력을 말하게 되며, 인력의 수와 기술적 완성 정도를 통해 클러스터의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에서 투입조건을 대표하는 주체는 클러스터 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되는 것이다.

구성요소	해당 주체	기능
수요조건	클러스터 기업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
	클러스터 매출	소비 수요에 맞는 재화 공급으로 발생하는 매출

표 5. 수요조건 요소의 특징

수요조건 of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되는 주체는 클러스터 내 기업과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에 의한 매출로 대입될 수 있겠다. 기업은 지역 산업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에 맞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재정적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되며, 클러스터의 매출은 클러스터가 생산한 재화의 소비 수요로, 실질적인 클러스터의 수요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에서 수요조건을 대표하는 주체는 클러스터의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3. 진흥 성과 진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성 요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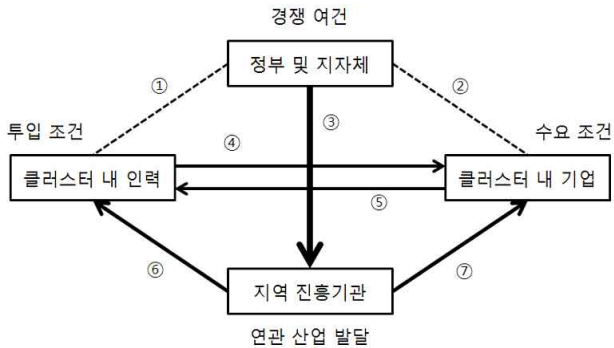


그림 3. 진흥 성과 진단을 위한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성 요소 연계¹⁴⁾

위에서 살펴본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에 <그림 3>과 같이 정부 및 지자체, 클러스터 내 인력, 클러스터 내 기업, 지역 진흥기관을 구성 요소로 배치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간의 연계를 설정하여, 구성요소와 연계를 볼 수 있도록 <표 6>을 구성하였다.

번호	연계 대상	연계 내용
①	인력, 정부 및 지자체	인력의 임금과 고용형태
②	기업, 정부 및 지자체	산업 활성화 정도
③	정부 및 지자체, 진흥기관	정책 방향, 정책 추진 출연금, 정책사업비
④⑤	클러스터 내 인력과 기업	산업 발전의 기본 관계, 신제품(창작)
⑥	진흥기관, 인력	진흥기관의 인력 양성 정책, 종사자 수
⑦	진흥기관, 기업	진흥기관의 기업 양성 정책, 기업 수, 매출액

표 6. 구성 요소간의 연계

①의 경우는 투입 조건과 경쟁 여건의 관계로 인력의 임금 정도와 고용 형태로 연계가 나타나며, 경쟁력에 대한 연계 정도는 이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②의 경우는 경쟁 여건과 수요 조건

14) 서정수, 앞의 논문, 재구성.

과의 관계로 산업 활성화 정도로 연계가 나타나며, 경쟁력에 대한 연계 정도는 이차적으로 나타난다. ③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에서 가장 큰 연계가 나타나며, 인위적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기본이 되게 된다. 경쟁 여건과 연관 산업 발달에 대한 연계로 정책 관련 사항의 시행과 관련 출연금 및 사업비가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연계로 지역 진흥기관이 발생되며, 지역 진흥 기관이 진흥 행위의 주체가 되게 된다. ④와 ⑤의 경우는 투입 조건과 수요 조건과의 연계로, 클러스터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관계이며, 클러스터의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혁신성과 발전성은 인력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을 이끌어내고, 기업은 생산품 수요의 확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인력에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 즉, 신기술을 통한 신제품과, 단순 제작이 아닌 창작의 형태로의 생산품 발전이 요구되는 연계이다. ⑥의 경우는 투입 조건과 연관 산업 발달과의 연계로, 진흥 기관의 인력 양성 정책과 클러스터 내 인력의 확보 정도를 나타낸다. 이 연계는 클러스터 경쟁력에 중요한 부분이 되며, 클러스터 발전의 기초라 할 수 있다. ⑦의 경우는 수요 조건과 연관 산업 발달과의 관계로, 진흥 기관의 기업 육성 정책과 생산된 재화에 의한 매출 정도로 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클러스터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클러스터 발전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6>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의 지표가 객관적, 정량적으로 수치화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이 모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이다.

Ⅲ. 춘천·부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1.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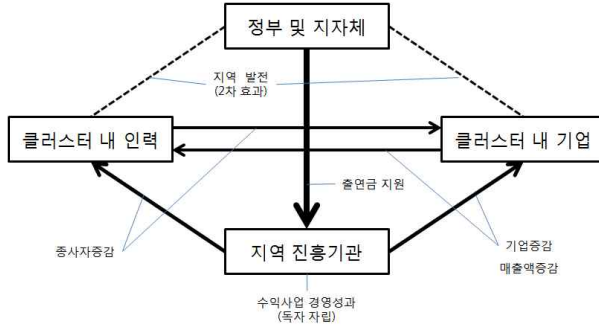


그림 4.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모델¹⁵⁾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는 <그림 4>와 같은 연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출연금 지원과 수익사업 경영성과를 통해, 진흥기관의 독자 진흥사업 수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 자립 정도를 진단할 수 있으며, 종사자 증감 정도, 기업 증감 정도, 클러스터 매출액 증감 정도로, 클러스터 경쟁력에 대한 진흥 성과를 진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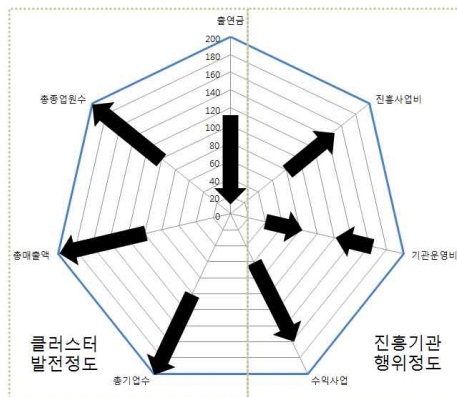


그림 5.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

15) 서정수, 앞의 논문, 재구성.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진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지원금을 지역 진흥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와 함께, 진흥기관이 순수 진흥 기능을 하였는지, 아니면 독자 수익 사업을 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종사자 증감, 기업 증감, 매출액 증감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되는 2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게 된다.

<그림 5>는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지표들이 나타내야 할 이상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출연금의 증감 정도는 클러스터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차 감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진흥사업비의 경우는 진흥기관이 지역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나, 클러스터가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점차 줄어들어야 된다. 기관 운영비는 진흥기관의 운영비로 클러스터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급격한 증가나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진흥기관의 수익의 전체를 의미하며, 출연금의 감소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진흥사업비와 기관운영비 정도의 규모는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총 기업 수, 총 매출액, 총 종업원 수는 클러스터 발전의 절대적인 지표이므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은 춘천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지표들을 06년도를 기준으로 100으로 환산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성장률과 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구해 도식화 하였다. 2009년도의 기업 수는 국가 공식 통계가 없어 0값으로 처리하였다¹⁶⁾.

위의 성과 분포를 보면, 진흥기관의 행위정도인 진흥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기관운영비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축물 등의 조성에 의한 변동성으로 볼 수 있다. 수익사업의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행위정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16) 2008년도까지는 문화산업 통계에서 기업수를 조사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콘텐츠 산업 통계로 바뀌면서 기업 수 항목이 제외됨.

진흥기관이 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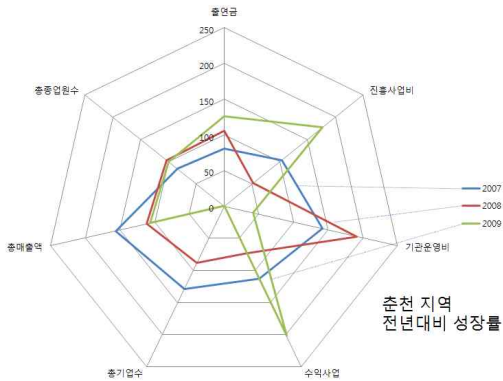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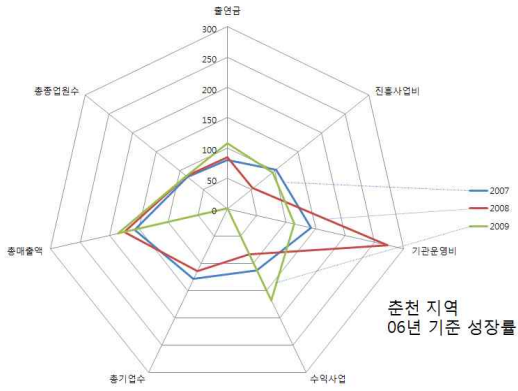


그림 6. 충청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¹⁷⁾

17)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사업실적, 2006-2009』,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09. 충청시, 『문화산업 단지 조성 현황』, 충청시, 2010. 문화체육관광통계포털, culturestat.mcst.go.kr, 검색어: 지역별 애니메이션 매출액. 문화체육관광통계포털, culturestat.mcst.go.kr, 검색어: 지역별 애니메이션 종사자수. 지표부분을 성장률로 계산하여 정리.

클러스터의 인위적 지원 정도인 출연금은 점차 감소하고, 기업 수는 소폭의 증가를 보이고, 총 종업원 수는 감소하는 발전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총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진흥 기관이 출연금의 감소로 인해 클러스터의 중요 요소인 기업과 인력 양성을 증대하기 보다는, 진흥 기관에 집중된 수익 사업과 매출액의 증대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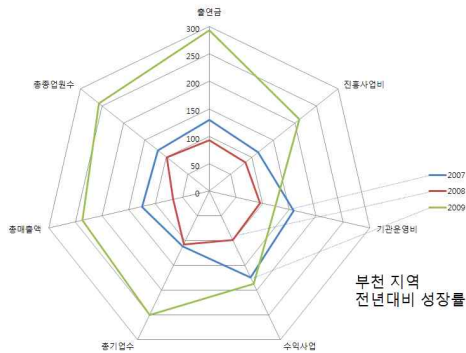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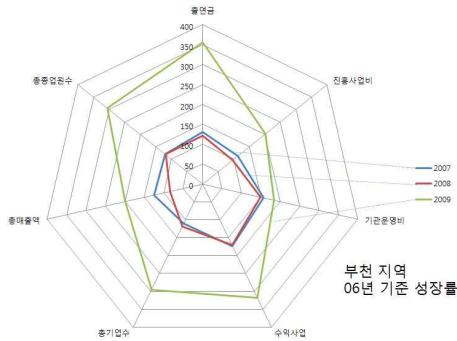


그림 7. 부천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¹⁸⁾

18) 부천 지역의 총 기업수와 총 종사자수는 기업과 작가팀의 지표를 합계하여 산출하였다. 문화체육관광포털, culturestat.mcst.go.kr, 위의 검색어 동

<그림 7>은 부천 지역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지표들을 06년도를 기준으로 100으로 환산하고, 06년부터 09년까지 연도별 성장률과 직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구해 도식화 하였다.

위의 성과 분포를 보면, 진흥기관의 행위정도인 진흥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기관운영비는 증가 후 일정 범위에서 변동중이다. 이는 진흥기관의 입지 변동과 확대에 의한 변동성으로 볼 수 있다. 수익사업의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전체 행위정도에서 기관운영비와 함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 사업에 크게 치중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클러스터의 인위적 지원 정도인 출연금은 계속 증가하고, 기업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총 종업원 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총 매출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진흥 기관의 입지 및 여건의 확장으로 인해 클러스터의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입지 기반이 확충될수록 클러스터의 중요 요소인 기업과 인력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는 발전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전형적 모습이다.

춘천과 부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춘천 지역은 출연금 부족으로 인한 진흥기관 집중형의 클러스터가 생성된 진흥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의 중요 요소인 기업과 인력군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천의 경우는 발전적인 클러스터 내 기업과 인력군에 대한 진흥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로 인한 연계 강화와 산업군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사회학적 기반으로서는 두 지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금전적 요소, 발전 시기, 입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태와 시기를 나타내는, 두 지역의 진흥 성과를 비교해 봄으로

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간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황 보고서 1998-201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정보센터 백서 2002-2006』, 부천만화정보센터, 2007. 지표부분을 성장률로 계산하여 정리.

써 진흥 성과 모델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었다.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모델은 지역 진흥 성과와 클러스터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진흥기관의 역할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진흥 성과와 구성 요소의 연계 모델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진흥 성과 모델에서 구성요소 지표와의 연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_{\infty} \frac{(\Delta Dm)(\Delta Pm)(\Delta Tm)(\Delta Cn)(\Delta Wn)}{(\Delta Im)(\Delta Em)}$$

Dm : 출연금, Pm : 진출사업비, Tm : 총매출액, Cn : 기업 수, Wn : 종업원수
Im : 기관운영비, Em : 수익사업비, Δ : 변화량, M : 진흥성과 모델

표 7.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발전 단계 진흥 성과 연계 모델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모델과 구성요소 지표와의 연계는 <표 7>과 같으며, 클러스터 생성과 발전 단계에서는 인위적 진흥이 필요하게 되므로 진흥기관과 그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표 7>의 연계 모델과 같이 기관운영비와 수익사업비의 변화량은 진흥 성과에 반비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외의 변화량은 비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M_{\infty} \frac{(\Delta Tm)(\Delta Cn)(\Delta Wn)}{(\Delta Dm)(\Delta Pm)(\Delta Im)(\Delta Em)}$$

표 8.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 안정 단계 진흥 성과 연계 모델

<표 7>의 연계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발전되는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는, 인위적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기관의 역할로 안정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클러스터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게 되어 타 클러스터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경쟁력을 확보

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의 환류로 들어가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인위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인위적 진흥 정책이 필요 없어지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진흥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본래의 다이아몬드 경쟁력 모델로 회귀할 것이다. 즉, 이 과정의 진흥 성과 모델과 구성 요소 간의 연계 모델을 보면, 총 매출액, 총 기업 수, 종업원 수가 진흥 성과 모델과 비례하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해 요소로 반비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진흥기관 형성과 인위적인 산업 진흥 및 지역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단위의 경쟁력이 전무하거나 경쟁력이 매우 약한 국내 현실에 의해 도입된 방법이고, 발전과 도태를 거쳐 선택 받거나 경쟁력을 확보한 클러스터는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발전의 환류에 도달할 것이다. 다만, 국내의 지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서는, 지역 클러스터 보다는 전국을 단일 규모로 구성하는 클러스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약점은 항상 존재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략, 구조, 경쟁관계에 경쟁 여건을 설정하고, 요소 조건에 투입 조건을 설정하고, 수요 조건은 그대로 수요 조건, 연관 산업과 지원 산업에는 연관 산업 발달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성 요소로, 경쟁 여건에는 정부 및 지자체, 투입 조건에는 클러스터 내 인력, 수요 조건에는 클러스터 내 기업, 연관 산업 발달에는 지역 진흥 기관을 대입하였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국내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

터는 자연 발생적인 클러스터가 아닌 인위적으로 시작되고 육성해가는 클러스터이므로, 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관 산업 발달 부분에 진흥 기관이 대입된 것이다.

인위적 산업 진흥을 위해서 진흥 기관이 대입된 클러스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진흥 기관의 진흥 정책과 행위가 클러스터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발전적 환류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진흥 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와, 기업과 인력에 대한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매출액이라는 시장성을 만들게 되고 이에 따른 진흥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진흥행위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정책 추진 출연금, 정책 사업비, 종사자 수, 기업 수, 매출액 등이 되고, 이 지표를 통해 다이아몬드 모델의 진흥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진흥 성과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통계상의 유효 범위인 06-09년도의 춘천과 부천 진흥기관의 각 지표를 증감률로 진단해 본 결과, 진흥 기관의 행위 정도와 클러스터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 진흥기관의 행위에 따라 클러스터의 방향성과 발전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진흥 기관이 행하는 진흥 정책 행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성 요소 지표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러스터 발전 단계의 진흥 성과 연계 모델은 진흥기관의 진흥 행위 성과와, 인위적인 개입이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연계 모델로 나타낼 수 있었고, 클러스터가 안정 단계로 진입했을 경우는 진흥기관의 진흥 행위와 인위적인 개입이 클러스터 경쟁력에 저해가 되는 연계 모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의 진흥 성과 모델과 구성 요소 연계 모델을 도출하여 클러스터의 존재 유무가 아닌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방법은 자생적 클러스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생성한 클러스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계 관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정량화 될 수 있는 지표만을 사용하였는데, 차후 정량적 지표의 확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각 연계와 지표를 활용한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수의 개발을 통하여 클러스터 진흥 성과 및 클러스터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사업실적, 2006-2009』,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09.
- 국정홍보처,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국정홍보처, 2003.
- 김대호 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 마이클 포터, 『경쟁론』, 세종연구원, 2003.
- 복득규,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만화정보센터 백서 2002-2006』, 부천만화정보센터, 2007.
- 춘천시, 『문화산업 단지 조성 현황』, 춘천시, 2010.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간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황 보고서 1998-2010』,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국정과제회의 보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 산업자원부,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 『산업클러스터 추진협의회 자료』, 산업자원부, 2002.
- 서정수·권재웅, 「춘천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진화와 회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25호(2011), pp.155-175.
- 서정수, “행위자 중심의 영상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추진 성과 비교 - 춘천·부천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 2).

- 이승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8).
- 문화체육관광통계포탈, culturestat.mcst.go.kr, 검색어: 지역별 애니메이션 매출액, http://culturestat.mcst.go.kr/StatisticsPortal/McstPortal/statistics/viewStatOlap.jsp?TBL_MGM_NO=STBL-1021534.
- 문화체육관광통계포탈, culturestat.mcst.go.kr, 검색어: 지역별 애니메이션 종사자 수, http://culturestat.mcst.go.kr/StatisticsPortal/McstPortal/statistics/viewStatOlap.jsp?TBL_MGM_NO=STBL-1021532.
- Cooke, P. Knowledge, *Economic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 2002.
- Porter, M. E., “Cluster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76, No.6(1998, Nov.-Dec.), pp.77-90.

ABSTRACT

**A Study on the Outcome Analysis of the Local Cluster
Based on the Animation Industry**

Seo, Jeong-Soo

The animation cluster in Korea has begun as a part of the local cultural cluster in the late 1990s with components of companie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which were necessary to run the cluster. And, the animation cluster was initiat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regional economies, but the basic unit was the local on a small scale. Because of this inherent weakness in the local cluster, it was needed to add some additional strategies that could expand the local animation industry into the formal leading industry. That is why the development policy was set up, and the local promotion agency based on this policy was established. It has been several years to manage the local promotion agency, and it is reported that there have been some visible effects. But, it is found out that analyzing the outcome of small unit cluster on the basis of existing criteria on a large scale is not reliable, which means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outcome of local cluster in a material way. Some examples of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cluster was made not autonomously but deliberately. Second, the animation cluster of each province has the same market as its target. Therefore, this research — on the basis of the diamond model — focuses on analyzing the existence and role of local promotion agencies rather than evaluating the outcome itself. Through the cases of two provincial cities, Chuncheon and Bucheon, this research examines if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outcome of local clusters managed by promotion agencies.

Key Word : cultural industries, animation, cluster, diamond model, outcome of promotion, promotion agency

서정수

한림성심대학교 영상콘텐츠학과 교수
(200-711)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80

Tel : 033-240-9212

integer@hsc.ac.kr

논문투고일 : 2012.08.01

심사종료일 : 2012.08.29

게재확정일 : 2012.09.06